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4 ● 4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 ACT News

### ACT 총회



**저희 창조과학선교회의** 총회가 2월 20-22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최인식 회장을 비롯하여 이재만 부회장, 김무현 박사, 이동용 박사, 최우성 박사(이상 기존 사역자)와 김남준 박사, 김선욱 박사, 김낙경 박사(이상 새로운 사역자) 그리고 Esther Hong 간사가 참석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샌디에고에서 열린 콘퍼런스 이후 2년만에 모든 사역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공통점을 확인하고 조율하였을 뿐 아니라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 사랑과 순종을 확인하고, 느끼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총회 기간에는 양승훈 교수의 창조와 격변에 대하여 (이재만), 홍수 말기와 빙하시대 (이재만),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최우성), 빅뱅의 문제점 설명에 필요한 천문학적 용어 설명 (이동용) 등 네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나누었고 Red Rock 캐년 답사 그리고 김낙경 박사의 한국 어린이 사역 보고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를 전후해서 김남준 박사가 전임사역자로, 김선욱 박사와 김낙경 박사가 새로운 강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새 강사들과 기존 강사들의 사역이 더욱 활발해져서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사역자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이번 뉴스레터에 이어 차례로 신게 됩니다.

## 새 강사 소개

### 김남준 박사 / 전임사역자



2009 Ph.D. in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 (미시건 주립대학교)  
1999 M.S. in Microbiological Engineering,  
(미생물공학, 석사), Konkuk Univ.(건국대학교)  
1997 B.S. in Microbiological Engineering, (미생물공학, 학사),  
Konkuk Univ.(건국대학교)

### 김낙경 박사/ 관심분야: 어린이 사역



1992 Ph.D. in Food Science ,  
UNIVERSITY OF GEORGIA (조지아 주립대학교, 박사)  
1989 M.S. in Food Science,  
UNIVERSITY OF GEORGIA (조지아 주립대학교, 석사)  
1986 B.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식품공학, 학사),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후 대상식품, 한국식약청(FDA)을 거쳐 현재는 버저킹의 국제 품질관리 수석 매니저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305-378-3030, godlovesbk@gmail.com 입니다.

### John Kim (김선욱 박사)/ 관심분야: 2세 청소년 사역



1990 Ph.D. in Biochemical Engineering (생화학 공학 박사)  
University of Delaware (델라웨어대학교)  
1983 B.S. in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학사)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김선욱 박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특허와 상표 등록국 특허 심사관으로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703-750-3189, sunukim02@yahoo.com입니다.

## 월드미션 대학교 샌디에고 창조과학 박물관 견학

지난 1월 5-16일 2주간 “창조와 과학” 겨울학기에 이어 2월 28일 월드미션 대학교의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님들과 함께 초대 된 88명이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샌디에고에 있는 창조과학 박물관

관을 관람하였습니다. 창조과학 박물관은 창조부터 현재까지 성경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샌디에고 해안에 있는 토리파인 스테이트 비치에서는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과 화석들을 실제로 보고 만져 봄으로써 지층형성과 짧은 지구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홍수의 규모를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은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인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교회의 각 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은 3월 28일(토)입니다. 개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세미나 <창조주 하나님>

미국 서부지역 5 교회(LA 온누리교회, 알바인 온누리 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West LA 온누리교회, 생수의강 선교교회)에서 새신자 반 강의로 진행 중인 “창조주 하나님”이 CGN-TV에서 DVD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DVD는 온누리교회 비전교회에서 사용 될 예정입니다. 새로 제작된 DVD를 통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관심있는 교회나 개인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시카고 제 8기 창조과학학교

2009년 4월 6일 ~ 6월 15일 매 월요일 저녁 8-10시 제 8기 중부지역 창조과학학교가 시카고제 일연합감리교회 (담임: 김광태 목사 847-541-9538)에서 열립니다. 범 교회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청 문의는 847-845-5368/630-400-6114, Email: tyi@sbcglobal.net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빙하시대 탐사여행 출발!!!

6월 4-6일(목-토)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출발한다. 빙하시대 탐사여행은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의 증거들을 통해 성경적 역사와 세계관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유지는 노아홍수와 빙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훌륭한 곳들이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세코이아 국립공원, 그리고 398번



도로를 통해 이어지는 Mono Lake, Owens 협곡, Alabama Hills, Whitney 산은 그 경관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며 더욱 감격할 것이다. 인도는 이제만 선교사가 하며 창조과학 선교회로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창조과학 전임사역을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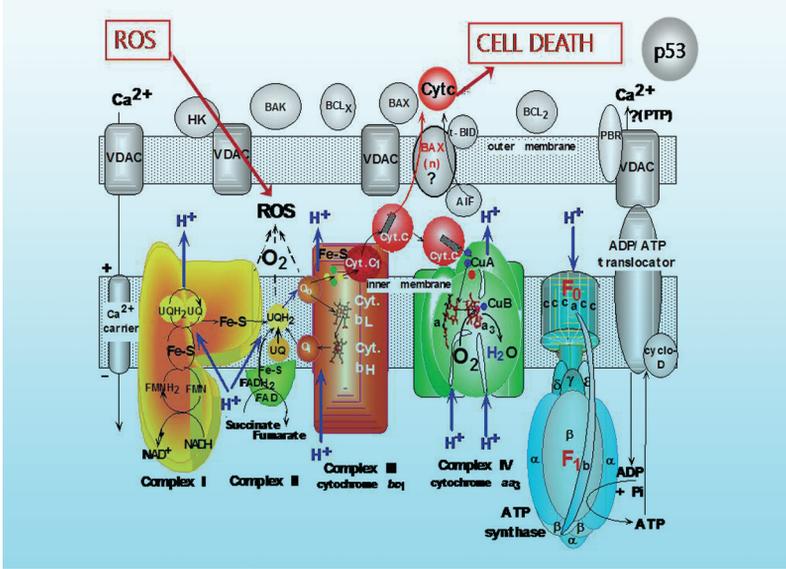
저는 금년 1월부터 창조과학 선교회 전임사역을 시작한 김남준입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인해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미국에서 박사과정 또한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냈던 유학기간 동안, 저는 생화학이라는 전공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물 법칙과 원리들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과학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1년여 앞두고,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12. 31. 2006 ~ 1. 5. 2007)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의 큰 사건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학생시절 지식을 채우기 위해 읽었던 창조과학책들의 내용이 단지 상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행을 통해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경공부시간이면 늘 예로 들어왔던, “그랜드캐년보다 깊고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도 진짜 그랜드캐년을 눈으로 대했을 때 정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죄로 인해 홍수로 심판 받았던, 심판의 흔적”을 보고 있노라는 설명은 그 이전에 누구도 또 어떤 책에서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로 가득했던 과거 그랜드캐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그 순간의 기억은 여행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로를 고민 하고 있던 제 마음에 그 여행 이후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일까?” 하는 오



필자의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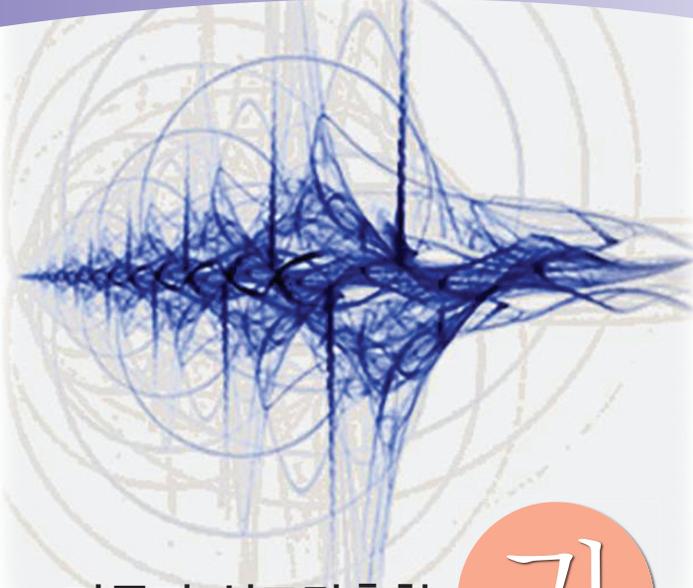
랜 목상가운데 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르심 (여행 후 떠나지 않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까지는 그 후로도 몇 개월 동안의 고민들이 있었지만, 말씀가운데 비로소 두 물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 전공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은 그러기에 더 없이 좋은 학문이었기 때문에 늘 공부와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자니라” (롬 1:20). 증거는 정말 많지만,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천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이 “진화론”이라는 그릇된 사고 때문에 왜곡되어, 그 잘못된 생각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요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성경이 그르다”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곳 LA에서의 삶을 빠르게 적응하고, 귀한 창조과학 사역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귀하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인도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지혜롭게 해 나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창조과학 사역을 통해 변화될 많은 크리스천들과 세상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짧은 인사의 글을 마칩니다.



김남준 박사  
생화학



## 파동과 신묘막측한

# 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연구해 보면 아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광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지극히 정교/섬세 하고 신묘막측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필자가 강의하는 대학과목 중에 ‘파동역학(wave mechanics)’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파동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정말로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의 멋진 설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파동들이 각기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 아래에서 전달되는데, 그 법칙을 ‘파동 식 (wave equation)’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음파 (sound wave), 전자기 파 (electro-magnetic wave), 그리고 탄성 파 (elastic wave)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와 같이 여러종류의 파동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파동식의 법칙아래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파의 전달 속도가 파장 (wave length)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똑 같다는 것이다. 이는 파형의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질이다. 즉, ‘의사 전달’ (communication)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질이다. 하지만 자연계의 모든 파가 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수면파 (water wave)나 일부 탄성파등은 그러한 성질을 갖고있지 않다. 꼭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파들이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음악을 듣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그러한 일상속에 그토록 놀라운 창조주의 설계를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뇌에서 무슨 소리를 내도록 명령 하면 그

파 (signal)가 전자기파로 신경전달계를 통하여 전달되어 목의 성대(vocal cords)를 울리게 된다. 그러면 성대의막(membrane)이 울리며 그 시그널은 탄성파로 바뀐다. 그러면 그 탄성파형은 다시 공기 중의 미소한 압력을 변화시키며 음파로 전달된다. 그러면 그 음파는 상대방의 귀의 고막(ear drum)을 진동시키며 다시 탄성파로 바뀐다. 이 탄성파의 진동은 너무도 미세하여 증폭이 필요한데 중이의 청소골(ossicles)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이 청소골은 인체에 존재하는 뼈 중 가장 작고 가벼운 뼈인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체의 모든 뼈가 나이가 들면서 자라지만 오직 이 뼈만은 그 정교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출생이후 전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말로 신묘막측한 설계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증폭된 파는 달팽이관(cochlea) 속의 섬모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 자극은 다시

전자기파로 바뀌어 신경전달계를 통하여 뇌속으로 그 시그널을 전송하고, 마침내 뇌속에서 그 시그널을 읽어내어 판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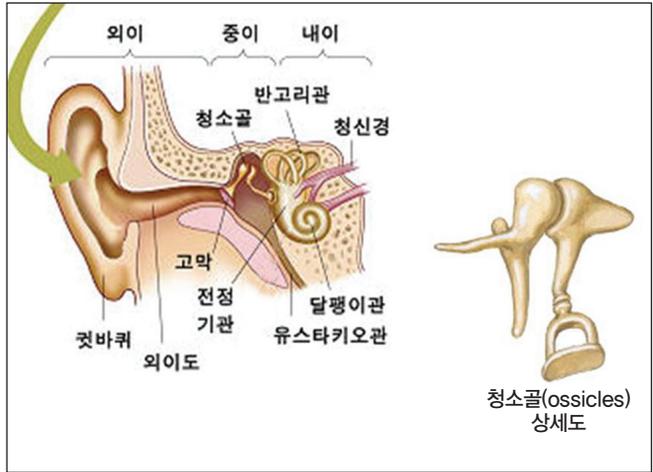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설사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강의 도중에 이러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러한 과정이 설계자의 신묘막측한 설계 없이 오랜세월 분자들이 부딪히다 보니 우연히 생성되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손드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사람의 귀가 더욱 더 놀라운 것은 더욱 복잡한 메카니즘을 통하여 완전한 평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정교하고 섬세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상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필자는 최근들어 어지럼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며 많은 검사를 해 보았지만 치료는커녕 그 원인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귀의 기능에 관련한 첨단 의학 기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 이토록 신묘막측한 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런 자신의 귀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이었다고 끝까지 우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와의 지으신 것이니라”(잠 20:12)





바벨탑?? 바벨탑!!! (8)



# 점점...



## 바벨탑 이후에도 공룡이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룡들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한 개 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상 동물을 창조 6일째에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다(창 1:20-25; 출 20:11; 요 1:3). 따라서 공룡들은 아담이 창조된 그날 수많은 놀라운 다른 짐승들(beasts)과 함께 지어 졌다(창 2:19). 성경에 의하면 사람과 공룡은 원래 동시에 살았지 공룡이 멸종한 후 수백만년 뒤에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공룡은 노아 시대에도 생존 했는데 성경이 모든 종류의 육상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창 6:20). 우리는 수백만 마리의 공룡들이 그 홍수에 묻혔다는 사실도 화석을 통해서 알고 있다. 공룡들은 각 종류별로 두 마리씩 방주에서 안전하게 살아 남았다. 아마 어린 것들이 대표로 살아 남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코로 숨을 쉬고 육지에 사는 모든 창조된 종류들이 쌍으로 보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창 6:19-20; 7:14-16).

홍수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공룡을 직접 관찰했다는 성경적인 단서들과 성경 외적인 단서들이 많이 있다. 노아홍수 후 불과 몇 백 년 안에 쓰여진 욥기 40장에는 이름의 뜻이 알려져 있지 않은 베헤못 behemoth 이란 동물이 나온다. 이 설명은 고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생생한 공룡 묘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꼬리가 백향목같고 자신이 만든 것들 중에서 으뜸이라는 초식공

룡에 걸맞는 거대한 베헤못을 읍의 목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표현을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흩어 진 뒤에도 커다란 공룡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성경 밖에서도 세계 곳곳에는 어떤 영웅들이 커다란 파충류를 죽였다는 기록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백 개가 넘는 홍수전설만큼이나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고대 유럽인들은 그런 괴물들을 “용(dragon)”이라 불렀는데 문학작품이나, 그림이나, 설화 등에 등장하고 있다. 수천 권의 책이나 고대 전설들에 보이는 그 동물들은 현실감이 없어 보이는데 공룡이 멸종된 이후에 신화나 걸출한 사람들의 무용담에 맞게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보고들은 화석에서 발견되는 공룡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인 수메르에서 유래한 많은 신화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길가메쉬란 사람이 벌목을 하던 중 무섭고 사나운 이빨을 가졌으며, 나무와 갈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동물을 죽이고 목을 잘라 전리품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더 최근 기록은 BC 2 세기경에 기록 된 외경 “벨과 용” 에 바빌로니아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



북미 Anasazi 인디언들의 그림(BC 50~AD 1200년 추정)과 캄보디아 사원(AD 1200년 경)에 조각된 스테고사우루스를 닮은 공룡 등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들이다.

던 1차적인 목격담인지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상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지나친 상상일 것이다. 실제 화석에서 보여주는 모습들과 각각 다른 지역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상상한 모습들이 우연히 같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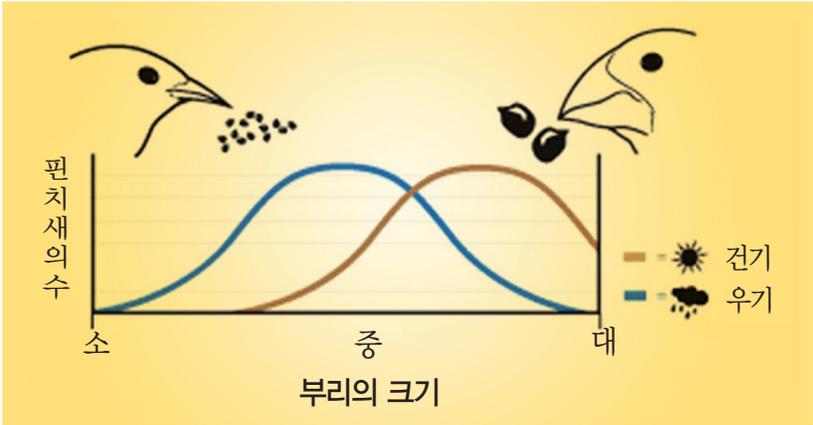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지금은 공룡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중요한 원인은 환경변화가 그 원인일 것인데 홍수 후에 그 공룡들이 먹을 음식의 종류와 양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지금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 똑 같은 원인으로 환경변화나 사람들에 의해 공룡들은 멸종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것들을 잡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베헤못에 대한 성경 기록을 믿음으로 받아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드리기 위해 다른 증거들은 필요 없다. 공룡들에 대한 세상 기록은 그저 부가적인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경이로운 이 공룡들은 성경대로 홍수 후에도 얼마 동안 종류대로 살아 남아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 땅 위를 거닐었던 것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 다윈과 자연선택



**다윈은** 생물들이 제한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한다고 믿었다. 생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더 강하고, 더 빠르며 더 교활한 것들이 살아남으며, 그렇지 못한 것은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윈이 목격했던 생존경쟁은 아담의 죄(창세기 3:17-19) 이후에 생겨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였다. 문제는 다윈이 자연선택을 관찰된 바는 없었지만 어떤 것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자연선택이 실제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생존하기 힘든 곳에 두어보자. 한 예를 생각해 보자. 여러 종류의 핀치새들이 비가 많아 수풀이 우거지고 먹이가 풍부한 한 섬에 살고 있었다고 해 보자.

여기에 가뭄이 몰아 닥쳐 특별히 작은 씨앗을 생산하는 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작은 부리를 가진 핀치새는 먹잇감을 찾기 어려워 졌다. 먹이를 찾기 어려워 지면, 작은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은 죽어갈 것이고 새끼도 적게 나게 되므로 수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 새들의 평균 부리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 선택의 결과다.

## 자연선택은 다음 세가지를 필요로 한다.

- 1) 변이 variation: 원래 개체군은 여러가지의 부리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유전될 수 있는 변이 Variation that is heritable: 특정한 부리 크기를 가진 핀치새

는 똑 같은 부리 크기를 가진 새끼를 낳아야 한다.

3) 제한된 자원: 모든 핀치새가 다 생존하기에는 부족한 먹이만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자연선택이 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보자.

(1) 자연선택은 본래의 변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 변이는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

(2) 자연선택은 어떤 개별 개체(예, 핀치새)도 바꾸지 않는다: 특별한 특질을 가진 개체수(예, 핀치새)의 비율만을 바꿀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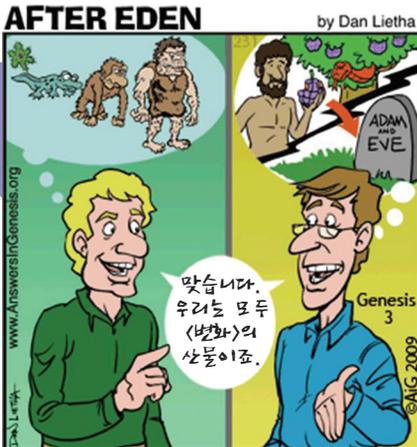
여러 해 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선택이 다윈이 믿었던 것과 같은 그 어떤 새로운 종의 핀치새도 만들어 낸 것을 관찰한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가운데서 살아남기 유리한 핀치새들만 더욱 많아지도록 돕는 자연선택을 보고 있을 뿐이다.

### 다윈이 자연선택의 원조인가?

다윈이 자연선택의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실제로 다윈 이전의 많은 학자들이 이미 생존경쟁과 도태에 대하여 썼기 때문이다. 다윈이 Edward Blyth 와 Patrick Matthew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표절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실에 매우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다윈이 쓴 글과 그가 표절했다고 주장되는 글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표절을 입증할 만한 예를 찾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윈이 자연선택에 대한 생각을 Blyth 와 Matthew가 아닌 다른 작가들, 특히 Candolle 과 Malthus로부터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종의기원”이란 책에 자연선택에 관한 참고 문헌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Candolle 과 Malthus를 넣었던 것이다. Blyth 와 Matthew 대신 Candolle 과 Malthus를 넣는 실수가 “진화” 하면 다윈의 이름이 생각나게 한 배경이다.

출처: Answers (Jan.-Mar.) 2009, pp 49-50.



〈변화〉란  
말 뜻을  
확실히 할 때



## 그랜드캐년의 형성 지질학자들의 변화

**그랜드캐년**은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규모의 협곡이다. 길이 446km, 최대 너비 30km, 최고 깊이가 1.8km에 이른다. 그 협곡 아래 흐르고 있는 강이 콜로라도 강이다. 그랜드캐년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은 평평한 모습 때문에 고지대란 느낌을 못 갖는다. 그러나 그랜드캐년은 해발 1,500m에서 3,300m에 달하는 고원을 깊이 판 협곡이다. 협곡의 깊이가 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높은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부분의 책들은 이 그랜드캐년이 오랜 세월 동안 침식작용으로 깎이고 깎여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마치 역겹의 세월 동안 일어난 자연침식을 설명하는 동일과정설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왔다. 과연 최근의 지질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2000년 6월 그랜드캐년 빌리지에서 콜로라도 강의 기원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70명 이상의 지질학자가 참석했으며 그랜드캐년의 형성에 대한 36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심포지움은 그랜드캐년 협곡의 형성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모임으로 평가된다. 이때 논의된 내용들은 ‘콜로라도 강의 기원과 진화’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어 출판되었다.<sup>1</sup> 그러나 발표된 전반적인 결론은 기존의 동일과정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었다. 모두들 격변적인 것들이었으며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적 해석이었다.

이 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을 지질학자이며 그랜드캐년 안내자인 래니는 2005년에 ‘ 조각작품 그랜드캐년: 증거, 이론, 그리고 미스터리’란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다.<sup>2</sup> 그는 이 책 전반부에서 심포지엄 전과 후에 반전된 자신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적었다. 먼저 심포지엄 참가 전이다.

“내가 초등학교 때 사포가 나무조각을 아주 천천히 깎듯이 갈색의 모래를 가득 담은 콜로라도 강이 오랜 지질학적 기간 동안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암석을 깎았다고 들었다. 그 선생님은 협곡이 어떻게 아주 깊게 파이는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을 사용하고 계셨다. 나는 작은 모래입자가 강을 따라 흐르며 서서히 암석을 마모시키는 것을 상상했었다. 그러므로 수십 년의 인생으로는 협곡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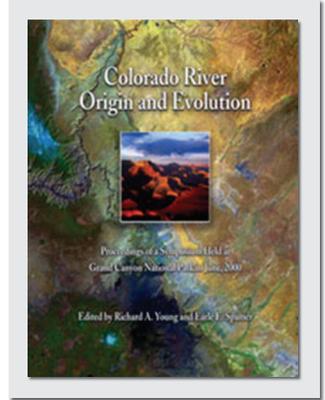
그러나 래니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심포지엄 후에 변화된 시야를 분명하고 대담하게 써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론 깊어지기는 거의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 흙탕물만 천천히 흘러서는 그랜드캐년이 깎여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늘날 침식과정에 대하여 꾸준히 관찰한 결과... 드물게 일어나는 큰 규모의 홍수로만 깊게 만들 수 있다... 그 엄청난 홍수는 기반암 위의 모든 자갈과 모래를 하류로 운반시킬 정도로 세차게 흐르는 큰 물이었을 것이다.” (p. 41)

2000년 심포지엄에서 내린 협곡 형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현재 그랜드캐년의 동쪽과 북쪽에 있었던 거대한 두 개의 호수가 연속적으로 붕괴되며 협곡이 형성’ 되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콜로라도 고원을 보면 지금의 그랜드캐년의 동쪽과 북쪽에 고도가 낮은 두 개의 호수 흔적이 남아있다. 그 호수는 흔적과 고도로 추적할 때 북미의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네 개 주에 걸쳐있으며, 그 규모를 보면 남한 면적의 약 80%에 해당한다.

심포지엄이 있기 6년 전에 이미 창조과학 지질학자인 오스틴 박사는 그랜드캐년이 두 개의 호수가 터져서 이루어졌다는 격변적 모델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바로 노아홍수 모델을 통해서

홍수후기 물 빠지는 과정에서 남겨놓은 호수가 터지면서 그랜드캐년이 형성되었다는 책을 냈다. 바로 “그랜드캐년 격변의 기념비”란 책이다.<sup>3</sup> 역시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답을 갖고 있는 자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성경은 진짜 역사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다.



1. Young, R. A. and Earle, S. E.(editor), 2004, Colorado River Origin and Evolution: Proceedings of Symposium Held at Grand Canyon National Park in June, Grand Canyon Association, 2000.
2. Ranney, W. Carving Grand Canyon: Evidence, Theories, and Mystery, Grand Canyon Association, 2005.
3. Steven, A. A., 1994, Grand Canyon: Monument to Catastrophe,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Santee, California.

## 샌디에고 한빛교회 탐사여행 후기

(12/25 ~12/27, 2008)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회복의 역사와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재만 선교사님과 창조과학선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박 3일, 짧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 박진건 목사 부부

그랜드 캐년이 창조주의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빅뱅과 진화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깨우쳐준 이재만 선교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성실함에 감동받았습니다. -Justin & Jin Hee Kim

이 시대의 과학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가장 비 과학적이고 비 논리적인 해석으로 진화론을 고집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였던 저를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지 않았던 속제가 풀린 듯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탐사여행을 마치게 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과 창조과학선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송현주 & 노정순

4년 만에 두 번째로 참가하는 이번 탐사여행은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첫 번째 여행 후 창조과학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 여행은 믿지 않는 남편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신 창조과학 탐사여행, 이번에는 남편에게 저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이정애

열정! “믿음으로서 믿음을 갖는다.” 이런 말씀 외에도 너무나 새로운(저의 기준에서...) 사실을 증거해주는 선교사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무늬만 교인(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지만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동희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탐사여행까지 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알고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지금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느꼈으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창조과학 세계 여행 시리즈가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두나

병 고침을 통해 만난 하나님께서 창조, 구원, 영생의 세 단어를 다시 한 번 확신시켜 주신 귀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종희

창세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그랜드 캐년이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의 모습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선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신시켜주셔서..... - 김은숙

“창조과학 콘서트” 를 읽고 꼭 한 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창조론과 사건(대홍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창조론에 대해 더욱 많은 확신이 있기를..... - 최성태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제 자신의 Identity에 대해서 커다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살아온 과정 속에 저 자신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던 자연주의, 과학, 진화론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행에 저와 아내를 오게 하신 큰 뜻을 찾게 되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의 아들과 딸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과정과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인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배우고,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어류, 조류, 포유류를 가르치며 나도 모르게 인간을 동물의 한 종류임을 강조했던 기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신앙과 지식을 분류해서 생각한 미숙한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좋은 축진제가 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박미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확신을 입으로 안 하면서도 이번 여행의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믿음이었는지 믿는 자로서 믿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준비가 필요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아도 멋있다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보지 못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감사드립니다. -김지연

성경의 모세 5경의 저자가 정말 모세이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사실(fact)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탐사여행을 통하여 저의 “유신론적 진화론” 의 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전이 되었으며 기습 후련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람이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숙경

2박 3일간 아무 사고 없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며 식사, 잠자리 모두 챙겨주시던 이재만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성경에 입각한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 권창기

하루 빨리 잘못된 교과서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완전히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은 나 자신을 보며 다른 이들에게 꼭 이 탐사여행을 추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하

2009년 ACT Schedule

- 4/1 인랜드교회 에버그린회 (세미나, 이재만, 909-802-5865), Pomona, CA
- 4/1 시카고헤브론교회 성인학교 특강 10-11am(이동용, 630-400-6114), IL
- 4/3 샌디에고 한빛교회 (세미나, 이재만, 858-874-2412), San Diego, CA
- 4/6-6/15 중부 창조과학학교 매월요일 8-10pm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 847-845-5368), IL
- 4/7-9 창조과학 탐사여행 (또 감사 선교교회, 323-225-9191)
- 4/12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213-381-1390), West LA
- 4/13-15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381-1390), NV
- 4/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760-745-4977)
- 4/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대서양 대회 목회자 탐사여행, 213-381-1390)
- 4/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YWAM DTS, 213-381-1390)
- 5/3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213-381-1390), West LA
- 5/7-9 창조과학 탐사여행 (MOM 선교회, 408-313-1527)
- 5/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949-261-9100)
- 5/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갈보리 은혜교회, 310-800-5890)
- 5/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 5/24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213-381-1390), West LA
- 5/29-31 신시네티 능력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513-382-1421), OH
- 6/4-6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6/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 6/7 - 8/9 창조과학학교 (매 주일 오후, LA 온누리교회, CA
- 6/14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213-381-1390), West LA
- 6/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6/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미준 강사 수련회, 213-381-1390)
- 6/26-28 빙하시대 탐사여행 (CBMC, 213-381-1390)
- 7/13-15 창조과학 탐사여행 (인랜드 순복음교회, 213-381-1390)
- 7/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7/23-24 Come Mission 세미나 (이재만, 213-383-5499), L.A, CA
-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Come Mission, 213-383-5499)
- 7/31-8/2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공동체, 213-446-2821)
- 8/3-5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770-643-1459)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 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